

제목: 용서, 어떻게 할 것인가?

본문: 마태복음 18:23-25, 35 (Mt 18:21-35)

(마태 18:21)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. "주님,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,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?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?"

***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**

I. 용서하지 않으면 ()가 없다

(눅 17:3-4)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.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,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. **4**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,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'회개하오' 하면,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일곱 번을 잘못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라고 하신다

II.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() 받지 못한다

(마 18:26-27)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, '참아 주십시오. 다 갚겠습니다' 하고 애원하였다. **27**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, 그를 놓아주고, 빚을 없애 주었다.

(마 18:28-30)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,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,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'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' 하였다. **29**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. '참아 주게. 내가 갚겠네.' **30**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,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,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.

(마 18:32-34)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. '이 악한 종아, 네가 애원하기에,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. **33**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,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?' **34** 주인이 노하여,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,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.

(마 18:35)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,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

(마 6:12)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

(벤전 3:7-8)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,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. **8**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.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.

(사 59:1-2) 오직,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,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,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.

III. 용서하는 ()을 알아야 한다

1. 우리 스스로 ()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

(롬 12:19)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,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.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"'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, 내가 갚겠다'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" 하였습니다.

(창 50:19)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

2. 그 사람에 대한 내 ()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